

느낌종打 ... 물음표 投성이

**KIA 스프링캠프 돌입
2017 시즌 밑그림 그린다**

타자
최형우 영입·나지완 잔류
용병 버나디나 멀티맨 기대
김선빈·안치홍 콤비 복귀
투수
헥터·양현종·신진 팻던 외
확실한 4~5선발 없어
홍건희 등 21명 시험대

‘호랑이 군단’이 2017시즌 운곽을 그린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캠프 선수단이 지난 31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 14명, 선수 42명 등 56명의 선수단은 오늘 3월 10일까지 오키나와에서 2017 시즌 워밍업을 하게 된다.
KIA는 지난 FA시장에서 나지완을 잔류시킨 데 이어 최형우의 영입에 성공하면서 목적인 타선을 완성했다. 새로운 외국인 타자 버나디나는 공·수·주에서 모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주전 키스톤 콤비로 활약했던 김선빈·안치홍도 복귀 후 첫 캠프에 나서게 되면서 타선의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전력이 업그레이드된 타선에 비해 마운드는 물음표투성이다. KIA는 오키나와에 21명의 투수를 파견해 물음표 투수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단 이번 캠프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해야 할 새 전력들이 대거 눈길을 끈다. ‘잡수협’ 손영민·임기영·박진태(신인)와 함께 박경태·손동욱(좌완), 박지훈·김종훈(우완) 등 8명의 투수가 김기태 감독과 처음 스프링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며 1군 입성을 노리게 된다.
선발진부터 다양한 시도와 구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선수단이 지난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 사진 왼쪽은 최형우와 나지완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버나디나(왼쪽)와 팻던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원투펀치로 활약한 헥터, 양현종과 함께 새로운 외국인 투수 팻 던으로 우선 세 자리가 채워지기는 했지만 두 자리는 확실한 주인이 없다. 지난 시즌 선발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홍건희·김운동 그리고 이어진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던 ‘예비 FA’ 김진우가 선발 후보들이다. 새 얼굴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
선발진의 변수는 ‘200이닝’이다. 지난해 헥터와 양현종은 나란히 200이닝 고지를 넘으며 KIA 마운드를 이끌었다. 하지만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만큼 두 사람의 올

시즌을 놓고 우려의 시선이 있다. 특히 양현종은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시)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는 만큼 ‘어깨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불펜의 퍼즐 맞추기도 중요하다.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해준 한승혁·고효준, 반대로 부진한 시즌을 보냈던 심동섭이 불펜의 ‘키’다.
투구폼을 바꾼 한승혁은 시즌 초반 팔꿈치, 왼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며 전력의 선수가 되기는 했지만 꾸준하고 강렬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진한 인상을 남겼다. 마무리 임장용이 흔들릴 때



구원 투수로 나서서 위기를 막기도 하는 등 뒷단 속을 위한 주요 선수로 급부상했다.

다. 극적인 세이브와 승리도 기록했고, 스피드도 조금씩 살아나는 등 반전의 계기는 만들었다. 무엇보다 한기주의 경험이 KIA 마운드에 필요하다.
이번 캠프에는 마운드의 한 축인 윤석민과 ‘최고참’ 최영필이 빠졌다. 윤석민은 오른쪽 어깨 외상 수술을 받아 재활 중이고, 최영필도 최근 맹장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출발이 늦어지게 됐다. 베테랑들의 부재 속에 한기주는 김광수와 함께 경험 많은 우완 역할을 담당해줘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를 기다린다

**피츠버그 단장
“정상적 캠프 합류 희망”**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삼진아웃’을 당한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올해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
아직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피츠버그 지역 신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지난 31일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가 정상적으로 캠프에 참가한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피츠버그의 스프링캠프의 야수 소집일은 21일이며 그 전까지 강정호에 대한 징계 여부가 정해져야 정상 참가가 가능하다.
닐 헌팅턴 피츠버그 단장은 “아직 징계 과정이 진행 중이다. 강정호가(캠프에) 도착해 함께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결정을 만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보통 메이저리그는 음주 적발 선수에게 징계 대신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강정호는 음주 운전으로 도주 사고를 일으켜 입건됐다. 이후 강정호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 28일 최종 엔트리에서도 빠졌다.
/연합뉴스



박병호는 기다려야

**중순계 스프링캠프 합류
미네소타 단장, 평가 보류**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명예 회복을 노리며 미국으로 향한다.
박병호 에이전트인 리코스포츠 에이전트는 지난 31일 “박병호가 2일 미국으로 떠나 개인훈련을 하다가 2월 중순 시작하는 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로 메이저리그 문을 노크한 박병호는 지난 시즌 부상과 부진으로 시련을 겪었다. 시범경기에서 홈런포를 연달아 터트렸던 박병호는 시즌 초반에도 특유의 장타력을 과시했지만 빅리그 투수들의 빠른 공에 애먹으면서 타율은 계속 떨어졌다. 6월 오른손목 통증으로 고생하던 박병호는 7월 2일 마이네리기에 내려간 뒤 빅리그에 복귀하지 못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성적은 62경기 타율 0.191(215타수 41안타), 12홈런, 24타점이다. 그리고 8월 25일 오른손 중지 수술을 받아 시즌을 마감했다.
박병호는 스프링캠프에서 주전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거둔 미네소타는 단장을 교체하며 팀 체질 개선에 나섰다. 박병호를 영입했던 테리 라이언 단장은 일선에서 물러났고, 새로 부임한 데드 레빈 단장은 박병호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WBC 대표팀 캠프 훈련 떠나

야구 국가대표팀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 8명이 지난 31일 광으로 훈련을 떠났다.
투수 박희수(SK)·임정우(LG)·장시환(KT)·원종현(NC)과 포수 김태환(NC), 내야수 김하성·서건창(이상 넥센), 외야수 손아섭(롯데) 등 8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광으로 출국했다. 선동열, 김동수, 송진우 대표팀 코치가 이들을 지도한다.
미리 광에 가 있는 차우찬(LG)은 광에서 대표팀에 합류한다.
이들은 다음 달 9일까지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기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제 대표팀과 함께 다음 달 12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공식 훈련에 참가한다.
선동열 코치는 “4일 훈련 후 하루 휴식하고, 5일간 연속해서 훈련할 방침”이라며 “몸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팀은 매년 광에서 스프링캠프를 해오던 삼성 라이온즈의 협조를 얻어 삼성과 훈련장을 함께 쓸 계획이다. 처음에는 투수 5명만 광에서 미리 몸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이후 야수 4명이 합류하면서 ‘광 미니캠프’가 차려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모두 소속팀이 미국에서 스프링캠프를 한다.
이대호(롯데)와 박석민(NC)도 소속팀이 미국에서 훈련하지만, 각각 오랜만에 동료와 만나고 팀의 주장을 맡는 등을 이유로 이번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컷 탈락’ 우즈, 두바이에서 부활할까

오늘 유럽투어 출격... 두 차례 우승·‘툭 5’도 다섯 번
17개월 만의 정규 투어 대회 복귀전에서 컷 탈락의 수모를 당한 타이거 우즈(미국)가 두바이 원정에서 명예 회복에 나선다.
우즈는 2일부터 나흘 동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에미리트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오매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출전한다.
오매가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은 우즈와 인연이 깊다. 그는 이 대회에 7차례 출전해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우승했다. 한 번도 컷 탈락한 적이 없고 다섯 번이나 5위 이내에 입상했다. 28라운드를 치르는 동안 25라운드를 언더파 스코어를 적어냈다. 평균 타수는 68.71타다. 이 코스에서 우즈보다 더 나은 스코어를 낸 선수는 없다.
우즈는 “코스를 구석구석 잘 안다. 그린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바이까지 17시간 장거리 비행도 충분히 견딜 만큼 건강과 체력도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즈의 당면 목표는 컷 통과라고 입을 모은다. 기대치를 낮추고 우즈의 복귀를 즐기라는 조언이다.
우즈는 이번 두바이 원정길에 자신이 설계한 두바이 트럼프 월드 골프장 건설 진척 상황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 골프장은 우즈의 두 번째 설계작이다.
한국 남자 골프의 간판으로 떠오른 왕정



훈이 우즈의 출현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다. 이 대회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29일 카타르 마스터스에서 새해 첫 승전보를 전한 왕정훈은 유럽프로골프투어 상급랭킹 2위에 올라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했다.
/연합뉴스

“맥주 마시고 굿샷 외쳐요”

‘갤러리 해방구’ PGA 피닉스오픈 모레 개막
세상에 가장 시끄러운 골프대회인 미국 프로골프(PGA)투어 웨스트 매니저먼트 피닉스오픈이 3일 개막한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TPC스 코츠데일(파71)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피닉스오픈은 여느 골프대회와 달리 ‘축구장 응원’ 허용된다. ‘정숙’과 ‘매너’를 강요하지 않는다. 갤러리 대부분은 맥주를 마시고 고향을 지르며 관전한다.
특히 티박스부터 그린까지 스탠드형 관중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16번홀(파3)에서는 2만여 명의 관중이 발을 구르고 고향을 치는 통에 마치 체육관을 방불케 한다. 잘 친 샷에는 우레같은 함성과 박수가 쏟아지지만 실수하면 야유가 쏟아진다. 흥분한 관중이 짝 찬 콜로세움에서 싸우는 로마 시대 검투사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서 선수들은 16번홀을 ‘콜로세움’이라고 부른다.
피닉스오픈은 50만명을 웃도는 입장객을 끌어모아 세계에서 가장 관객이 많은



골프 대회라는 명성을 쌓았다. 작년에는 61만8000명이 입장했다.
올해는 저스틴 토머스(미국)라는 신예 스타의 등장으로 피닉스오픈의 열기가 더욱 달궈질 전망이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2주 연속 우승에 최연소 59타, 36홀·54홀·72홀 최소타 기록 등을 차례로 갈아치운 토머스는 이곳에서 시즌 4승에 도전한다.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상급랭킹 2위(312만 달러)에 평균타수 1위(68.715타)에 올라 있는 마쓰야마는 피닉스오픈에서 유난히 강하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이 대회에서 공동4위, 준우승 그리고 우승 등의 성적을 남겼다.
PGA투어에서 아직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한 안병훈도 출사표를 냈다. 안병훈은 ‘골프 해방구’ 피닉스오픈이 처음이다. 말형 최경주와 노승열, 그리고 김시우 등도 출전한다.
/연합뉴스